2024-04-30

Today's Chart

드디어 시장개입 칼을 꺼낸 일본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그림1. 4월 29일 달러-엔 장중 흐름: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으로 요동치는 달러-엔 환율

그림2. 급격히 확대된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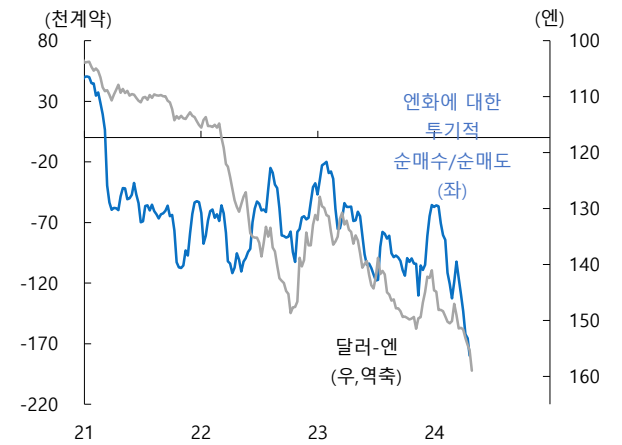

그림3. FOMC회의 이후 국채 금리 흐름이 달러-엔 환율 안정 여부를 좌우할 변수

자료:연합인포맥스,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요동치는 달러-엔 환율

- 구두개입에만 그쳤던 일본 정부가 달러-엔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 직접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됨. 지난 26일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 기조로 인한 엔화 추가 약세 분위기에 힘입어 달러-엔 환율이

마침내 29일 장중 160엔을 터치하자 일본 정부가 곧바로 실개입에 나섬.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160엔 수준이던 달러-엔 환율은 156엔선까지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임

-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강함. 160엔마저 용인할 경우 자칫 170엔 선까지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엔화 약세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실제로 엔화 베팅한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은 <그림2>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급증 현상에서 어느정도 확인되고 있음
- 더욱이 엔화의 추가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부상할 수 있는 일본 위기론을 일본 정부입장에서는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컸음. 엔화 초약세가 물가 상승부담 확대 및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 정부부채 리스크가 재조명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임. 또한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시다 내각입장에서 엔화 초약세 현상이 내수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해야 할 목적도 커짐

■ 150엔 중후반 수준이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인 듯

-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지만 과도한 엔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적 개입에 나설 공산은 높음. 이번 외환시장 개입에서도 확인되었듯이 150엔 중후반 수준이 일본 정부의 달러-엔 환율 마지노선 역할을 당분간 할 공산이 높음
- 관련하여 5월 FOMC회의 결과도 주목됨. 즉 이번 FOMC회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매파적일지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 및 달러화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이고 이는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만약 FOMC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 즉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달러 추가 강세로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도 커질 것임. 이 경우 160엔을 두고 외환시장과 일본 정부간 치열한 공방으로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것임
- 반면 FOMC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준하는 매파적 목소리에 그친다면 달러-엔 환율이 일본 정부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달러-엔 환율 방향성이 금주 FOMC회의 및 미국 주요 경제지표(ISM 제조업지수 및 고용지표 등) 결과에 크게 좌우될 공산이 큼

■ 달러-원 환율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

- FOMC회의 결과는 물론 달러-원 환율이 달러-엔 환율과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함
- 만약 달러-엔 환율의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 등으로 다소 안정을 찾는다면 달러-원 환율 역시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역으로 매파적 FOMC회의 결과 등으로 달러-엔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도 재차 1,400원에 근접하는 환율 상승세가 나타날 것임
-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진정되지 못하고 확대될 경우 글로벌 자금의 흐름 역시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될 여지가 있어 달러-엔 환율의 안정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임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